

# 2009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현장

## 낙농산업 회생 위한 낙농가 중심의 FTA 대책 수립 되어야

전국단일쿼터제의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11월 24일 홍천축협 진리지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지역 대토론회



낙농선진국과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대책의 부재로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농가 여론수렴을 위해 11월 24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대토론회를 갖는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 기간에는 기존의 협회사업과 현안을 보고하는 순서와 더불어, 농식품부의 이성주 사무관이 정부의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현장에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생산자 중심의 실질적인 FTA 낙농대책 수립을 하길 요구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성주 사무관은 낙농제도 개선대책의 핵심을 원유조달 체계 다중구조로 인한 수급불안 심리 해소 및 농가 형평성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중앙낙농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이루어질 전국 쿼터제의 추진, 가공원료유 지원방안들에 대한 정부대책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농가들은 FTA 발효 이후 농가쿼터 삭감대책



▶ 11월 26일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지역 대토론회



◀ 11월 27일 공주 신진가든예식장에서 개최된 충남지역 대토론회



문제, 정부가 설치하려는 중앙낙농기구에 미참여시 정책지원의 중단, 농가-유업체간의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생산자위원회의 설치, 낙농조합 중심의 집유 일원화 등 실질적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며 일원화 된 쿼터체계의 확립을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육우송아지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가건물 포함, 간척지 내 낙농단지 조성, 면세유 지원 확대, 젖소·육우고기 표기 개선 등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11월 24일 강원, 26일 경기북부, 27일 충남지역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된 전국 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는 12월 1일 전북, 2일 전남, 3일 경남, 7일 충북, 8일 경기남부, 9일 경북지역에서 계속된다.